

28 자동차 조립공정 근로자에서 발생한 간세포암

성별	남성	나이	45세	직종	자동차조립직	직업관련성	낮음
----	----	----	-----	----	--------	-------	----

1 개 요

근로자 ○○○은 1992년(28세) □자동차공장에 입사하여 조립부서에서 자동차 조립 업무를 하였다. 2009년 11월 병원에서 건강검진결과 간세포암 진단을 받고 치료받다가 증세 악화되어 2012년 사망하였다.

2 작업환경

○○○은 1992년 □자동차공장에 입사하여 7년 4개월 간 소형조립부 조립반에서 글라스와 차체 사이에 방수 효과와 강도를 높이기 위해 자동차용 접착제를 도포하고 글라스를 붙이는 작업을 하였다. 그 후 4년 1개월 동안은 소형조립부 파이널반에서 차량에 각종 오일을 주입하는 액주입 작업을 하였고 그 후 5년 7개월간은 조립부 의장반에서 실러 작업을 수행하였다.

3 해부학적 분류

- 기타암

4 유해인자

- 화학적 요인(유기용제)

5 의학적 소견

○○○은 2009년 8월부터 몸살기운이 잘 나아지지 않고 피로를 잘 느껴서 동네 의원에서 치료받아 오다 2009년 11월 실시한 직장건강검진에서 간 초음파 검사 상 이상소견 보이고 간수치 높아서 간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듣고 2009년 12월 병원 방문하여 정밀 검사 받은 결과 간세포암 진단을 받았다. 그 후 치료 받다가 증세 악화되어 2012년 사망하였다.

6 고찰 및 결론

근로자 ○○○는 1992년 □자동차공장에 입사하여 7년 4개월 간 소형조립부 조립반에서 실러 작업 수행, 4년 1개월 간 소형 조립부 Final반에서 액주입 작업수행, 5년 7개월 간 조립부 의장반에서 실러작업 수행하였다.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인 유해요인으로는 플루토늄, 토륨-232, 염화비닐 등이 충분한 근거가 있음이 알려져 있고, 제한적 근거를 가진 유해인자로는 비소와 무기비소화합물, 폴리염화페닐, 트리클로로에틸렌, X선, 감마선이 있다. 근로자가 종사한 조립반 및 파이널반의 작업환경을 조사한 결과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유해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. 그러므로 근로자의 간세포암은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. 끝.